

새롭게 하시는 예수

이현래 목사



교회생활사

www.churchlife.net

새롭게 하시는 예수

2012년 7월 25일 1판 1쇄 인쇄

2012년 7월 25일 1판 1쇄 발행

저 자 : 이 현 래

발행처 : 교회생활사

주 소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05번지

연락처 : 대구(053) 768-3900

뉴욕(718) 279-9341

홈페이지 : www.churchlife.net

정 가 : 5,000원

인 쇄 : 대서기획(053)254-188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261

ISBN:978-89-89873-68-6

서문

성경은 “태초에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였다(창 1:1).” 로 시작하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21:5).” 로 마쳤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였다. 전능자는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는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는 것은 만물이 사람-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인 동시에 막중한 사명을 준다. 인간은 창조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는 창조 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자기들도 창조의 영광을 나태내기 위하여 자기들을 새롭게 할 인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전능자도 자신의 창조를 영광스럽게 할 인간을 찾고 있다(롬8:19~23참조).

2012년 7월

이 현 래

목 차

서언 ;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1. 새롭게 함 11

1. 새롭게 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함
 - 가. 구속은 위치를 바꾸는 것임
 - 나. 죽음으로 구속 함
 - 1) 억류 된 백성
 - 가) 바로에게서 풀려나오기 위하여 유월절 양이 죽었음
 - 나) 인류를 사단에게서 해방하려고 예수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음
 - 2) 해방 된 백성
 - 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삶
 - 나) 예수의 왕 되심을 믿음
 - 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
2. 창조와 구속으로 새롭게 함
 - 가. 전능자가 능력으로 만유를 창조하심
 - 나. 사람에게 만유를 새롭게 하도록 위임함
 - 다. 예수는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를 새롭게 함
 - 1) 죽으심으로 구속하심
 - 2)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심
3. 한 새 사람에 참여함
 - 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한 연합체임
 - 1) 서로 다르나 한 연합체요 한 건축물임
 - 2) 새 사람은 연합으로 생활함
 - 3) 서로 다를지라도 건축으로서 서로 존중 함
 - 나. 연합하여 세상을 정복함

II. 사람을 새롭게 함 31

1. 인간은 새로워 질 수 있음
 - 가. 여자이므로 가능함
 - 나. 흙으로 지었으므로 가능함
 - 다. 산 혼이므로 가능함
 - 라. 벽돌이 되므로 생명이 없어졌음

- 마. 여호와와는 산 자의 하나님이심
- 바. 새 사람을 지으심
 - 1) 옛 사람을 폐기하심
 - 2) 새사람을 지으심
- 2.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옛것을 심판하심
 - 가.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고 죽음으로 심판하셨음
 - 1) 흠으로 돌아가게 하심
 - 2)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심
 - 나. 노아 때에는 홍수로 심판하셨음
 - 1) 여호와와 신이 떠남
 - 2)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심
 - 다. 인류는 자기 욕망에 빠져 심판 받음
 - 1)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므로 심판 받았음
 - 2) 인류는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심판을 받았음
- 3. 예수는 모든 심판을 종결짓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하셨음
 - 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 1) 죄란 무엇인가?
 - 2) 빛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함
 - 3)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할 것인가?
 - 가) 이 죄를 처리할 사람이 필요함
 - 나) 예수 안에서 인류를 심판하심
 - 다) 예수께서는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 이 '죄의 모양' 으로 심판을 받으셨음
 - 라) 드러 짐
 -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
 - 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음
 - 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하심
 - 1)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
 - 2) 함께 죽고 함께 삶
 - 3)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
 - 가) 부활은 새로운 길임
 - 나) 나타내심을 보고 따라서 삶

Ⅲ. 율법과 그 계명들을 새롭게 하심

54

1. 율법 아래 있는 인생

가. 인간은 자기 의를 위하여 율법과 도덕을 요구함

나. 자신이 요청하고 존중하는 율법 아래서 신음함

1) 원함은 있으나 실행이 없음

2) 자기 의를 세우려니 더욱 불의함

2. 하나님의 대책

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나. 하나님의 의

1)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가) 구속 안에서 차별을 폐하심

나) 죄와 율법에 매인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음

다) 사탄을 정복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새롭게 하심

(1) 인생으로서 사탄을 정복하심

(2)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심

(3) 옛것을 폐하심

(가) 차별이 폐지됨

(나) 율법의 계명들이 회수됨

(4) 새것을 가져오셨음

(가) 분위기가 새롭게 됨

① 진노의 분위기

② 화해의 문이 열림

(나) 계약이 새로워 짐

① 율법을 통한 행위의 계약

② 은혜를 통한 믿음의 계약

(다) 새것이 옴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

②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함

(라) 율법과 계명들이 새로워 졌음

①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이 새로워 졌음

② 제물이 새로워 졌음

IV. 성전을 새롭게 하심

75

1.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임

가. 백성들과 함께 하는 여호와

나. 자신이 정한 곳으로 모세를 부르심

다. 백성을 만날 자신의 거처를 짓도록 지시하심

1) 성막의 구조와 그 기능들

가) 번제단

나) 성소

다) 지성소

2) 만날 장소를 정하시고 약속하심

3)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인격의 성전이심

가) 육체는 번제단에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음

나) 혼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셨음

(1) 생명의 빛을 발함

(가) 정금

(나) 기름

(다) 십지

(2) 생명의 양식을 드림

(가) 떡 상

(나) 떡

(3) 분향단에서 기도함

(가) 향단

(나) 향

(다) 번제단의 불로 향을 사름

*** 봉사의 원칙

다) 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음

(1) 피를 가지고 들어감

(2)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하심

(3) 피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심

(4) 육과 혼과 영을 온전히 드림(포기함)

라. 죽으심으로 옛 성전을 헐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세우심

마. 하나님은 교회를 거처로 삼으셨음

1) 교회가 성전이 됨

가) 교회-번제단

나) 교회-성소

다) 교회-지성소

2) 하나님은 교회적(단체적) 봉사를 원하심

가) 신약성서는 교회를 위한 것임

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체로써 이루어짐

다) 새로운 성전에서 봉사함

V. 제사(봉사)를 새롭게 하심

97

1.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제물을 드림

가. 먹는 것으로 드림

나. 받으실 분의 필요를 채워야 함

- 1) 제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보심
- 2) 교리보다 인격을 보심
- 3) 주의 뜻 행하는 자를 보심

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교통을 위하여 한 인격을 원하심

- 1) 교통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심
- 2) 선악과로 인하여 교통이 단절됨(죽음)
- 3) 예수는 완전한 제사로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심
- 4) 하나님을 섬기기(제사)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감

가) 번제 단으로 들어감

- (1)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를 취함
- (2) 피만 취하고 다른 것은 다 불사함

나) 섬기기 위하여 성소로 들어감

- (1) 성소의 떡을 먹고 그 양식으로 봉사함
- (2) 성소의 빛으로 분별하고 봉사 함
- (3) 죽음과 고난의 향기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함

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

- (1)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피만 드려야 함
- (2)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심

(가) 백성의 죄를 사하심

(나) 축복의 말씀을 주심

*** 옛 성전은 예수로 인하여 새로워 졌음

VI. 인류를 새롭게 하심

109

1.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인류를 창조하셨음

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임

나. 아담의 타락은 곧 인류의 타락임

2. 하나님께는 인류가 필요함

가. 사탄은 인류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거역케 하였음

나. 하나님은 한 족속을 불러 제사장 나라로 세웠음

-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
- 2)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직무를 유기함

3.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여
 - 정해진 목적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음
 - 가. 하나님의 목적
 - 나. 인간이 이탈하여 하나님을 대항함
 - 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려고 아들을 주심
 - 1) 예수는 인류 구속을 위해 합당한 제물임
 - 2)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
 - 가) 죽임 당하심
 - 나) 인류를 구속하심
 - 라. 예수는 구속으로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 부활로 새 인류(한 새사람-교회)를 창조하셨음
 - 1) 예수는 구속으로 분열을 끝내심
 - 2) 부활로 새 인류를 창조하셨음
- *** 분위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음

VII. 만물을 새롭게 하심 123

1. 새 사람은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해야 함
 - 가. 천사에 대해서
 - 나. 물질에 대하여
 - 다. 이웃에 대하여
2. 예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창조의 주가 되셨음
 - 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옴
 - 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음
 - 다. 하나님의 보좌는 만물을 새롭게 함
3. 만물의 이름을 새로 짓자

VIII. 소망을 새롭게 하심 134

1. 하나님은 연합된 인격을 약속하셨음
2.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음
 - 가. 이스라엘은 국권만 구하다가 망했음
 - 나. 선지자들은 다시 영원한 왕국을 소망했음
 - 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음
 - 1) 사도들의 소망은
 - 하나님과 어린양이 통치하는 왕국이었음
 - 2)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음
 - 3) 예수께서 왕국을 가지고 오셨음
3. 예수는 구속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음

- 가. 예수는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심
- 1) 인간의 소망의 종착점은 바벨임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소망)
- 2) 하나님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임

Ⅸ. 영원한 보좌

145

- 1.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
 - 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름
 - 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함
 - 다. 저주가 없음
 - 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봄
 - 마.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음
 - 바.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심
 - 사. 그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함
- 2. 그 영광 신부가 공급하심
 - 가. 듣는 자도 오라
 - 나. 목마른 자도 오라
 - 다. 값없이 받으라
 - 라. 속히 오시리라
 - 마.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I. 새롭게 함

서언 :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자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함이란 용도와 목적을 지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새롭게 됨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롬8:19~21).

‘만물’이란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다. 성경은 “태초에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보라, 내가(예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21:5, 22:13).” 로 마쳤다. 전능자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이다.

창조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은 있는 것의 의미와 용도를 바꾸는 것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기계적이고 숙명적이다. 그러나 새로워지면 의미와 용도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창조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할 자로 인간을 지으셨다(창1:26,27참).

그러므로 기계적이고 숙명적인 피조물들은 인간을 통해서 창조자의 좋으신 뜻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됨으로 새롭게 되어 피조물의 영광에 이른다(롬8:21참).

여기에 인간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인간이 창조자의 좋으신 뜻을 알고 순종하면 만물은 영광을 받고 우주는 평화로워지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 사명을 저버렸으므로 만물이 탄식하게 된 것이다(롬8:22참).

1. 새롭게 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함

그러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인격의 회복이 필요하다. 예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으로서 본분에서 이탈한 인간을 새롭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인간이 새로워지면 만유가 새로워진다.

인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개선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훈으로 가르쳐 왔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치가 이탈된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것이 무슨 방법이든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위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 구속은 위치를 바꾸는 것임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선하면 된다고 한다. 오직 하나님만 위치를 물으신 것이다. 교육을 받으면, 수양을 하면, 종교를 믿으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다. 개선을 위한 노력 이전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 타락한 인생은 구속을 통해서만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으로 들어오는 길을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것을 누가 무슨 방법으로 열 수 있단 말인가? 구속을 받지 않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타락한 인생은 구속을 통해서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동산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계2:7참).

나도 전에는 왜 구속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구속을 위해 죽어야 했는지도 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개선되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켜야 될 만큼 죽어 마땅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구속을 받아야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종교 안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기독교는 믿음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유교는 덕을 행하는 것으로, 불교는 진리를 깨닫고 선행을 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개선해 보려는 것이다.

종교 안에 있는 목표는 표현은 달라도 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막아놓으셨다(창3:24참).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속 안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동산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동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죽음으로 구속함

1) 억류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방법으로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다. 사백 년 간 애굽에 억류되어 종 되었던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범죄한 인간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그의 손을 벗어나서 에덴으로 돌아갈 길은 없었던 것이다(빠져나갈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단지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나왔다고 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구약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인격으로 회복됨으로써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은 하나는 육신적이고 역사적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서 구원의 같은 유형인 것이다. 그때 어린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었고, 지금 예수는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그 때 그들은 바로의 손에서, 지금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 붙잡혔을 경우에는 죽지 않고는 다시 나오지 못한다. 바로의 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다면 애초에 바로에게 억류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사단은 인류보다 강한 자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억류되었고 인류는 사단에게 억류되었다.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다. 우리는 바로에게 억류된 일이 없지만 사단에게 억류되었다.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에게 붙잡힌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속이라는 신기한 방법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인류는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억류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고전5:7참).

가) 바로에게서 풀려나오기 위하여 유월절 양이 죽었음

죽음의 사자는 문에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장자를 멸하려 왔던 사자가 이미 죽은 집을 다시 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르게 보면 바로도 피(죽음)를 보고 놓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도 사람도 죽은 자를 다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쓸모가 있어서 붙잡았고 사단은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린한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붙잡힌 자는 죽어서 쓸모가 없어져야 놓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쓸모가 없어져서 풀려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인류를 사단에게서 해방하려고 예수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음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붙잡혔던 것은 양식 때문이었고 인류가 사단에게 유린된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같이 되려 했기 때문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롬 6:10).” 라 하였다. 하나님같이 된 죄는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2) 해방된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했으며 그의 통치를 위한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이 죄에서 해방된 인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 바로의 종이 여호와와 백성이 되듯 사단의 종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새로워진 것이다.

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삶

예수의 구속 안으로 돌아오면 생명나무 열매인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훌륭한 교훈으로 들으면 도움은 되지만 생명나무에 이를 수는 없다. 구속 안에서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나무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야 생명나무가 된다. 구속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 그러면 교회가 되고 교회는 왕국이 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나) 예수의 왕 되심을 믿음

구속 안에서 보기 전에는 성경의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어떻게 어린양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돌아오겠는가? 어린양이 우주를 통치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호랑이나 사자의 통치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어린양의 통치가 이루어지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왕이 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없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어린양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타고 돌아오는 다윗과 같은 왕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 그런 왕은 오지 않았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가?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까 저주를 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어린양 예수의 구속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통곡의 벽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양이 세상의 왕이 되겠는가? 이것이 모순이다. 그렇지만 구속 안에서는 어린양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믿어진다. 이것이 비밀이다. 내 생명이 바뀌어 목표와 입장과 신분과 체질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류가 볼 때 어린양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구속을 통해서 비로소 어린양이 왕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죽은 예수가 진리(참)의 사람, 새 인류의 조상,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

그러즉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이 인정한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요1 5:5참조).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요1 4:15참조).

그러므로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분으로 믿는다면 인생과 세계가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요1 5:5참) 생각하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 새것이 되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사람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라고 하였다.

2. 창조와 구속으로 새롭게 함

하나님은 그의 경륜 안에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

가. 전능자가 능력으로 만유를 창조하심

하나님이란 전능자의 칭호다. 성경은 맨 처음에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창1:1참), 인간은 이미 천지

가 창조된 후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전능자가 창조했다고 한 것이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창조 신앙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인간이 만든 것들도 만들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전능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진실이다. 젊었을 때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번민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혼자서 번뇌하거나 말거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여전히 있었다. 나는 홀로 우주를 짊어지고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천지는 창조되었다. 창조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천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된다. 그것이 창조를 믿는 것이다. 어차피 아무도 더 이상 알 수 없으니까 그 정도나 저 정도나 같은 수준이다. 다만 이 천지는 전능자가 창조한 것이며, 이 우주를 있도록 한 이는 전능자인 것이다.

나. 사람에게 만유를 새롭게 하도록 위임함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1장 2절부터는 전능자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인간에게 계시한 것이다. 계시는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린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이다.

이 계시는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새롭게 하는 것을 알려 준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는 데서 “빛이 있으라…….” 는 데로 진보하는 것이다. 이 창조는 전능자가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함을 받았어도 피조물인 만유는 모두 기계적이고 숙명적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는 기계적이고 숙명적인 피조물들을 창조자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의 자유를 위해 새롭게 할 자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 이름은 그것의 의미와 용도를 정의하고 표시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지은 대로 사용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간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사용자인 셈이다. 기계는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만든 자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사용하면 그 기계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더 이상 새로워 지지 못하고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롬8:19참).

다. 예수는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를 새롭게 함

창조 안의 영원한 경륜은 아담을 통하여 만유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될 때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었으나 인간의 이탈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예수는 중단된 하나님의 경륜을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오신 분이다.

1) 죽으심으로 구속하심

아담이 이탈함으로 만유의 새롭게 됨이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아담을 원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아담의 죄와 같은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다. 그는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같은 능력도 가지신 분이였다.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금지한 과실을 먹고 어설프게 하나님같이 되어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예수는 실제로 자연을 정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셨다. 그러나 그가 인생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는 인간들의 요청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그는 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다.

그 자리에는 예수가 속히 죽어 버리기를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자기들의 주님이 살아나기를 고대하는 제자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는 죽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요19:34,35참)

이로써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인간은 무슨 온전함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다 해도 사단이 말한 것과 같은 전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속하셨다.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밖에 없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를 추종하던 인간은 심판 받고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 예수 안에서만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을 이르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심판 받았고, 그 피로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엡1:7, 골1:14참). 나는 그대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사람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사람만을 상대하신다.

2)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심

예수는 나를 아담의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원래의 인간으로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헛된 소망으로 자고했던 나는 할 말이 없게 되었고 지식과 능력으로 부풀어졌던

몸집은 풍선처럼 쪼그라졌다. 이것이 갈릴리로 다시 내려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새롭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선을 얻어먹은 사람, 친히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 본 사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지만 우리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놀람도록 변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오순절을 겪으면서 완전히 변해서 물불을 모르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음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달라졌고 세계가 달라졌다. 부활한 사람이 온 것이다. 예수가 왔을 때 성육신 한 사람이 왔고, 죽으셨을 때 진실한 사람이 나타났으며, 부활하셨을 때 새사람이 온 것이다. 빛이 오고 땅이 물에서 드러나서 세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새사람, 새 세계가 온 것이다.

그의 죽으심은 위치를 이탈했던 인간을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었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의 죽으심은 만인이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었지만 부활은 경험적 사건이므로 본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왔고 그 세계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고전 15:20,21참).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

한 사람으로 살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사도들과 같은 경험은 물론 더 나은 부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빌3:10,11참).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있고 새사람 안에 있다.

3. 한 새사람에 참여함

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한 연합체임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진실)의 거룩함(순수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였다. ‘입으라.’ 는 ‘건축 안에 있으라.’ 는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다’ 는 것을 알았으면, 헛된 길에서 자고 했다고 알았으면 새사람 안으로, 새로운 연합체, 즉 사회 안으로 돌아와서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새사람은 생명으로 말하면 연합체이고, 건축으로 말하면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 안에는 지체들이 있고 건축 안에는 재료들이 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신비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집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공학적으로 연결되어 한 집으로 건축되어 있다. 예수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으로 연합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1) 서로 다르나 한 연합체요 한 건축물임

골로새서 3장 9~11절에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아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하였다.

‘옛 사람과 그 행위’ 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바벨을 쌓은 그 행위다.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구속 받은 생명으로 새로운 한 몸이 되었으니 거기는 아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옛 사람 안에서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차별이 있었으나 구속 안에 있는 새사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 하였다. 손도 발도 다 한 몸이며, 기둥도 서까래도 다 한 건물이듯이 한 새사람은 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다.

분열은 선악과로 인한 지식의 결과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서로 판단함으로 분열을 일으킨다. 사단의 첫째 목표는 분열이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여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 안에는 차별이 없고 새 생명 안에는 분열이 없다. 생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 손과 발은 다르지만 서로 필요하다. 다른 것이 곧 필요한 것이고 내게 없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건축(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든, 할례당이든 무할례당이든 아무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집을 위한 것이고 나타나는 것은 집뿐이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 온 사람들은 서까래나 기둥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이 강당만을 본다. 이 안에 철근이 들었는지 나무가 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구속 받은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나 건축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2) 새사람은 연합으로 생활함

고전 13:27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였다. 몸은 지체로 구성 되고 지체로서 산다. 서로 연합되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요 새사람의 생활이다. 옛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 같이 되어 연합이 불가능하고 바벨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려고”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엡4:12,15참).

3) 서로 다를지라도 건축으로서 서로 존중함

새로운 구조물이요 생명의 연합체인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안에는 서로 다를지라도 차별이 없고 다 필요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던 것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분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

나. 연합하여 세상을 정복함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창1:27). ‘번성하여’란 단체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땅(세상)은 단체로써만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단체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는 아무리 새사람이라고 해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한 새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혼자서 신앙생활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짜이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홀로 있으면 세상에 이용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는 무용한 사람이 되어 마치 건축에 쓰이지 못한 재료처럼 폐기되고 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새사람이 되어 “저 사람은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기 바란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넘어진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든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서까래로 만들 수도 있고 기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서까

래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기둥이나 서까래나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서까래든 기둥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만’ 이란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는 새로운 구조물이다. 바벨의 구조물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구조물이 되었다. 한 새사람이 된 것이다. 바벨의 사람이 교회의 사람으로, 분열하던 사람이 연합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옛 사람의 종착점은 바벨이고 새사람의 종착점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보석과 진주와 황금의 연합체다. 이 보석들은 모두 구속을 받은 후 연합을 위해 연단을 받은 성도들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연단을 받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연단을 받는다. 구속을 받은 사람은 연단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간다. 새로운 길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바벨로 갔다. 바벨로 가는 길은 옛 길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새 길이다. 바벨로 가는 사람은 옛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새사람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속하여 한 새사람이 되게 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어도 되고 믿음이 없어도 되고 충성이 없어도 되지만 바벨로 가면 안 된다. 신학적으로 유식하고 신앙적인 경험이 풍부해도 바벨로 가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안에 있는 연합 이외의 다른 것에 더 비중을 두다 보면 분열이 생긴다. 일부러 분열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다른 것에 더 비중을 두다 보면 분열로 가는 것이다. 정의, 공의, 심지어 사랑, 봉사, 희생 다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 비중을 두다 보면 연합은 무시되고 교회는 분열된다.

새사람은 절대적인 비중이 바뀐 사람이다. 연합하는 한 새사람으로 비중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이 바벨로 부터 구속받은 새사람이다. 인생은 애굽(육신적 세상)으로부터, 바벨(분열적 세상)로부터 구속받아 새사람, 새 인류가 되어 한 새사람(교회-사회)으로 살아야 한다.

II. 사람을 새롭게 함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만물은 사람에게 그 이름이 맡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새로워지려면 사람이 새로워 져야 한다.

1. 사람은 새로워 질 수 있음

사람은 전능자가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이 되게 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도록 지어졌다. 산 혼이란 흙이나 여자와 같다. 스스로는 기능만 있지만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생산한다. 흙은 씨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여자는 남자에 따라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새로워 질 수 있다. 전에 무엇을 생산했든지 지금은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여자이므로 가능함

여호와께서는 먼저 유혹을 받았던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3:15참). 하와는 약하여 뱀의 유혹을 받았으나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승리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자-인생은 약하므로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여자는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남자를 만나면 자식을 낳는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나. 흠으로 지었으므로 가능함

하나님은 남자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여자에게 두셨다(창3:15참). 그 이유는 여자는 그의 성질이 흠과 같아서 언제든지 새로운 열매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흠이나 그릇이나 여자는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됨에 따라서 변화되는 존재다. 흠은 씨에 따라 콩밭이 되기도 하고 팥 밭이 되기도 한다. 그릇도 그렇고 여자 역시 그렇다. 그러므로 새로워 질 소망은 항상 있는 것이다.

사람은 흠으로 지음 받았고 다시 흠으로 돌아간다. 근

본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다. 흙은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다. 그런데 흙은 신비롭다.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 흙-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산 혼이므로 가능함

사람은 근본 재료가 흙이므로 능력이 천사보다 못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벗고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 천사는 하나님과 방불하다. 그래서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히1:14참). 그런데 사람은 산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 아들이 되어 그의 기뻐하심만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산 혼은 무엇이나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기능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기능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표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산 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유에게 표현하고 분배하는 자로 지음 받은 것이다.

그런데 산 혼인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해진 코스에서 이탈했다. 그 흙이 밭의 길을 이탈했고 산 혼이 하나님 표현하는 아들의 길을 이탈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범죄요 타락이다.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다.

라. 벽돌이 되므로 생명이 없어졌음

흠에게 정해진 가장 좋은 길은 밭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았다(창11:3참). 인간이 벽돌을 좋아하다가 벽돌이 된 것이다. 벽돌은 견고하지만 변화가 불가능하다.

바벨은 벽돌로 건축되었다. 벽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의 근본 재료다. 벽돌에는 생명이 없다. 콩을 심어도 나지 않으며 팥을 심어도 나지 않는다.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산 자의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며 멸망이다.

벽돌이 변화 되어 밭이 되려면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 (요3:3, 고전15:36참) 그러므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구속을 받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

마. 여호와는 산 자의 하나님이심

흠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인가! 여호와란 이름은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 붙기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산 자의 하나님이므로 고정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 곧 “나는 ~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그의 만드신바 인생도 씨를 받기에 따라서

생산이 달라지는 발과 같은 것이다. “인생은 ~이다.” 로서 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즉 인생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사람도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풍성하며 소망이 넘치는가! 이런 변화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가!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 새사람을 지으심

1) 옛 사람을 폐기하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그것으로 바벨을 건설했다(창11:3참). 그런데 야곱 족속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국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 벽돌을 굽는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출1:14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벽돌로 견고한 성을 쌓아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목숨 걸었던 민족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벽돌을 좋아하다가 벽돌이 된 사람들은 살아 계신 여호와와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생명의 말씀까지도 벽돌로 구워서 보존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벽돌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바벨은 벽돌로 쌓은 성이다. “견고하게 구워서 견고하게 쌓자!”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벽돌 같은 사람이 되어 벽돌로 된 성(사회)을 쌓아 놓고 무엇이나 벽돌처럼 구워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벽돌을 굽는 일은 인생고의 상징이 되었다(출1:14참).

천사는 능력이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사람도 자기와 같이 고정되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은 개선할 수가 없다. 천사를 개선할 수 없듯이 그의 종들도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폐기 처분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남자는 환경과 투쟁하다가 필경은 흠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자는 새로운 씨를 받아서 승리자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벽돌이 발이 되어 생명을 생산하려면 부서져서 흠-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십자가는 이미 정해진 길이고, 흠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2) 새사람을 지으심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하였다. 로마서 6장 8~1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하였다.

아담은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신 분이다.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살아 있는 것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보실 때는 죽은 것이다.

그분의 목적 앞에서 흠은 살아 있는 것이고 벽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벽돌에 대해서는 죽고 흠에 대해서는 살라고 하신다. 벽돌은 만들기가 어렵고 쌓기도 힘들지만 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만들려고 애쓸 일도 없고 살려고 고생할 일도 없다. 씨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이다.

2.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옛것을 심판하심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다. 지으신 이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주인에게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인간이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 영광만을 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다 범 죄자요 죽은 자다.

죄인에게는 사함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는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죄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심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옛 것을 처리하신다.

새롭게 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 중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다 이탈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죄목도 한 가지고 심판도 한 가지다.

가.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고 죽음으로 심판 하셨음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동산은 아담에게 지키도록 맡겨진 곳이며 하나님이 그의 생명으로 아담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그런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1) 흠으로 돌아가게 하심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여호와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 라고 하셨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고 흠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점으로 가는 것이다.

흠은 원점이기는 하지만 다시 빛을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선고는 복음적인 것이다.

2)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심

창세기 3장 22~24절에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롭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다. 영생에 참여치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 생명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동거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목적이 맞아야 한다. 아담은 이미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동거동행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자는 그와 동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가장 쉬운 길을 주신 것이다.

아는 것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고 기호가 다르면 동거하기가 어렵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생명을 대적한다. 날마다 대적하면서 동거하는 것은 사망인 것이다. 그러므로 추방도 축복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와 함께 동거한다면 영벌에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영생은 아니지만 영벌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잘못된 사람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축복이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옛 집을 허물어야 한다면 이는 큰 소망인 것이다.

나.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음

창세기 6장 5~7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라고 하였다. 만든 자가 만든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다.

도예가들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깨부수는 것을 보면 아깝다. 그러나 그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두드려 부수는 것이다. 다시 만들 수 없다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리지 못할 것이다.

1) 여호와와 신이 떠남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6:1~3)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와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이 있는 줄 아는 사단은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창3:5참). 그런데 이제는 그가 사람과 결혼하여

한 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거역한 천사들이며, 사람의 딸들이란 천사를 사모하는 인간들이다. 사단은 동산에서는 지식을 먹였고 이제는 남편이 되어 한 육체가 된 것이다.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다. 한번 빚어서 술이 된 포도는 다시는 포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도, 사단도 서로의 야망을 이루었다. 천사는 몸이 없어서 문제고 사람은 영이 없어서 문제인데 둘이 결합했으니 완전한 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했기에 하나님을 더욱 더 방해하고 대항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 대신에 이미 사단의 영이 인간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밭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좋은 농부가 떠났다는 것이고, 좋은 씨가 떠났다는 것이다.

2)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심

창세기 6장 6,7절에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워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라고 하였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창6:18).” 하였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패괴했고, 그 시대가 패괴하여 강포가 충만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었다(창6:9).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한 자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는 다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피림이 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한 자는 은혜가 필요한 자다.

씨는 옥토를 찾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를 찾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 흩은 농부를 대적하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 인류는 자기 욕망에 빠져 심판 받음

1)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므로 심판 받았음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겔14:5).” 하였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병력이 약하고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골3:5).” 하였다. 탐심은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다. 아담은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이스라엘은 탐심으로 우상을 섬겼다. 모세가 더디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소원을 속히 성취하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조급한 자에게는 더디 오시고 믿는 자에게는 속히 오신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믿고 따른다.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2) 인류는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심판을 받았음

인류는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망했다. 여호와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 하셨으나 인류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라며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같이 완벽해지려고 천사와 결합하여 네피림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같이 되려는 본성이 있다. 종교가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는 신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이다. 인류는 천사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이것은 탐심 중의 탐심이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종결해야 한다. 탐심은 옛것을 만듦을 들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신다. 누가 이것을 종결시킬 것인가?

3. 예수는 모든 심판을 종결짓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하셨음

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1) 죄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였다. ‘우리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같이 된 것이다(창3:5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한 것이다. 개가 호랑이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개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괴물일 것이다. 이것은 창조에서 빛나간 것이며 거역인 것이다. ‘빛나간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다.

2) 빛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함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사람은 개별적으로는 네 피림이 되었고 (창6:1~4참) 단체적으로는 바벨탑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늘에 오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하였다.(창11:1~4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천사와 인간을 결합한 이상적(?) 인간이다. 이는 아담이 소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들 중에는 바벨을 건설하고 실패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통해 전능함을 얻어 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모양은 달라도 어떤 면으로든 전능자가 되려는 것이므로 빛나간 것이다

3)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할 것인가?

인간이 인간의 길을 이탈하여 전능자가 되려 하고 있으니 일차적으로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흠 없는 자로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

가) 이 죄를 처리할 사람이 필요함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표할 자와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는 죄 없는 순전한 인간이 필요하다.

나) 예수 안에서 인류를 심판하심

아담에게 내려진 벌은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인간은 위대해지고 큰 업적을 이루었고 혹시 하나님같이 된다 해도 다 흠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명백한 심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종결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능력만 있으면 도덕과 율법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고 심판을 종결지을 뿐 아니라 새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러져서 축복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범죄는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회복도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롬5:15참).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심판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5:21).”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 예수께서는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 이 ‘죄의 모양’ 으로 심판을 받으셨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으셨고, 하나님 아들이신 신적인 능력(이적들)을 가지신 분이였다. 그는 아담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을 갖추셨던 분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이분과 같은 전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는 아담이 부러워하는 인간 최고의 전능자였으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진실을 드러내고 죽었던 것이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의 모양으로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였다(롬8:3참). 사람은 전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다.

그러므로 누가 동의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했던 사단과 그에게 속아서 부풀려 있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다(고전 15:3. 히9:28참).

라) 드러 짐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예수 안에서 종결 처리 된 심판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인생으로 드러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이며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계14:3~5 참).

하나님은 원래 흠이 없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를 받으신다. 흠이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그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시 흠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러 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드러 짐을 위하여 구속하셨다.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 드러 지면 그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은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이다(계22:3참).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위치가 회복되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8:1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우리의 죄)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나는 죽었고, 인생의 위치 즉 구속 된 위치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고후5:17참).

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통치)가 구속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의 통치는 죄가 종결되어 저주가 없어진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심판이 종결되고 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보좌는 왕좌, 즉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공급과 은혜 베푸심이다. 그의 다스림은 인간들의 다스림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창1:26,27참) 하였고, 아담에게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하셨다(창2:15참). 이것은 생명을 분배하라는 것이다. 만물은 사람의 생명의 분배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사용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인생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여 주심으로써 그를 대신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지고의 축복이

며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참된 영광인 것이다. 인간이 새의 생명을 분배 받아 그 생명으로 산다면 창공을 날게 될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 받아 살면 하나님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의 일은 은혜 베푸심을 목표로 시작된다. 성전은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 즉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이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죄와 심판을 종결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죄는 종결되었고 은혜의 보좌는 열린 것이다.

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하심

1)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15:20참).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죽으시고 자기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첫 열매(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첫 열매가 되셨다(익는다)는 것은 다음 열매들이 익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당연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도착한 것이며, 과일이 익으면 당연히 과일 안에 있

는 씨도 함께 익는 것이다.(롬6:8참) 첫 열매는 다음 열매들이 올 신호가 된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신호요 약속인 것이다.

2) 함께 죽고 함께 삶

죄가 종결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제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옛 세계가 심판되고 종결되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며(롬6:5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롬6:8참)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갈2:20).”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죄도 심판도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것도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하시고 심판을 종결하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온 것이다(롬5:12,19참).

주님이 다 이루셨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았다. 하나님께로 가는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 믿고 들어가면 된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 놓았다는 말이다.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하면 타면 된다. 구속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면 된다. 전에는 율법이나 양심으로 행했으나 이제는 구속으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3)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

가) 부활은 새로운 길임

그리스도는 땅 위에 계실 때 이렇게 저렇게 사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사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사실지 도무지 모른다.

부활의 삶을 모양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그 씨에게는 그 씨에 맞는 형체를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고 하였다(고전15:35~38참).

하나님은 모양이 없고 그의 길은 이정표가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시 그렇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정표가 없었다. 구름 기둥이 뜨면 가야 했고 구름 기둥이 앉으면 멈춰야 했다. 지도를 놓고 갔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나는 말씀에 이끌려서 왔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다.

나) 나타내심을 보고 따라서 삶

우리 죄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심판이 종결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고후5:17).” 새 것이니까 새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시제는 모두 과거형이다.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롬6:8).”,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살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모른다. 제자들도 십자가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부활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아는가? 그가 나타내심으로 그를 알고,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이다. 산을 보고 산을 알며, 바다를 보고 바다가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희랍인들은 나타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막상 지어진 것을 보고는 또 믿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밖에는 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창조와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므

로 그분이 친히 나타내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내심을 보고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찾아오신 이를 만나면 쉽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던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워 졌다. 찾아가면 십자가요 무덤뿐인데 부활하신 분이 찾아오신 것이다. 씨가 흙을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 얼마나 새로워 진 일인가! 그러므로 새로운 눈으로 새것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분이 부활하여 하늘로 가 버리셨으면 누가 그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찾아오셨으니까 보았고, 문을 열고 들어 오셨으니까 만났으며, 생선을 구워 놓고 “와서 먹으라.” 고 하시니 먹고 알아보지 않았던가?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늘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로 묶어서 다 종결지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이 되시려고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그 찢긴 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 부활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Ⅲ. 율법과 그 계명들을 새롭게 하심

1. 율법 아래 있는 인생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대신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자기 행위로 살게 되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도덕은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크게는 양심과 도덕률, 신명과 계율로 나눌 수 있다. 이방인에게는 자기의 양심을 기초로 한 도덕률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명(神命), 즉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이 있다.

도덕률은 인간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자는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인간을 바르게 하자는 것인데 형식만 따르면 도덕적으로는 외식(外飾)이 되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된다.

가. 인간은 자기 의를 위하여 율법과 도덕을 요구함

도덕이나 계율은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든 자기 스스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다. 인간은 왜 도덕과 율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수용하지 않는다(출19:7~참).

나. 자신이 요청하고 존중하는 율법 아래서 신음함

1) 원함은 있으나 실행이 없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율법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3절에는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였다.

기독교인들도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모양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은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종교적 고민이며 갈등이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인생은 일생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 기독교처럼 회개를 많이 하는 종교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양심에 채찍만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도덕이나 하나님의 계율을 버리면 야만이 되고 만다. 그래서 도덕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계율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더욱 더 모순과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다. 도덕률이 해이해지면 혼란에 빠지고, 도덕률이 지배하면 숨이 막히게 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이 이 문제다. 양심이나 도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신명이나 계율을 버릴 수도 없다. 도덕률도 계율도 선악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없애면 야만이 되고 지키자면 괴로운 것이다.

2) 자기 의를 세우려니 더욱 불의함

불의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셨다. 그런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 대답하였다. 여호와와는 다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창3:7~11참)” 하셨다. 즉, 벗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셨다는 것이다.

의복은 의를 상징한다. 아담은 자기 의(옷)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는 자기 의를 만들려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도덕이나 계율을 받아들여 옷을 입고 그 옷에 맞도록 실행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다.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 라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하나님의 대책

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그 대책을 로마서 3장 21~22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율법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다.

이 대책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다. 도덕이나 율법 아래서는 내가 그것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는 불의다.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 불의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의 행위로(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인간이 없는 줄 아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였다.(롬3:20~26참) 그의 의는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시고 그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 대신에 단순하게 진실한 한 사람을 보여 주시고 그가 참 사람이라고 믿고 헛되이 진실을 만들지 않으면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것이다.

1)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예수는 아담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나님같이**’ 되신 분이다.(요11:27참) 그러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하나님 같아지려는)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죽으셨다.(요19:34,35, 롬8:3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신 것이다.

사람은 원래 예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음 받았다. 그런데 지식을 취하고 생명을 버림으로 자신의 목표였던 그 사람 예수를 버리고 자신의 길에서 빛나간 것이다. 지

식을 취하면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도덕과 율법과 계율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보존한다. 그래서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공급을 받음으로 영생을 누린다. 아담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지식을 취하고 선의 실천을 위해 도덕과 율법을 끌어들이므로 안과 밖으로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나 예수는 생명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

가) 구속 안에서 차별을 폐하심

인간의 의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므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없다. **인생의 위치는 하나뿐이다.** 창조 안에서 하나이고 구속 안에서도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는 만유를 포함하는 죽으심을 통해 차별을 폐지하고 지성소, 즉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마 27:51, 히10:20참). 율법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므로 아무나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구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요14:6참). 그러므로 예수는 쉽고도 가벼운 분이시며 그를 믿기는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마11:28참).

나) 죄와 율법에 매인 인간을 자유케 하셨음

죄는 거역과 분열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 안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갈5:1,13 참). 하나님의 의는 죄와 율법으로 얽매인 인생을 자유하게 한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스스로 율법의 울무에 얽매인 가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참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대책으로 하나님의 의이다.

다) 사단을 정복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새롭게 하심

동서고금의 많은 성인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만족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 문제의 근원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사단을 처리해야 한다.

(1) 인생으로서 사단을 정복하심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라고 하였다. ‘이때부터’란 사단과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신 후라는 뜻이다. 즉 이 전쟁에 승리하신 때부터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위치를 지킬 것인가? 즉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쟁이다. 개가 소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에게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사람은 그 말을 믿고 그 지식을 취한 것이다.

그 결과 선악을 알고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못한 모순과 갈등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큰 능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질적이든 종교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더 큰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있으나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는 정욕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가 마귀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마4:1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의 차원도 다르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전쟁에 나가셨고 이 사람으로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이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고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마귀는 다시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하였고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 하였다.

마귀는 또 다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라. 내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 하였고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싸움의 내용은 “인생아, 너는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된단 말이냐?” 에 대하여 “그렇다 나는 인생이다. 인생이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도 아니며,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할 자다” 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 인간의 위치이며 태도인 것이다.

인간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능력의 천사에게 비굴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느라고 스스로 변민했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어 보려고 헛되이 분요했던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너무도 많고 복잡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지으신 이와 피조물이 분별되니까 온 우주가 단순해진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인생을 알고 계략으로 묶어 노예를 삼았지만 인생으로 그 지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물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자신이 인생임을 선언하면 마귀는 힘없이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하는 것이다(마4:11, 히1:1~참).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각자 그런 능력으로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을 이긴 무기는 단순하게 인생 그대로였다. 수양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 이면 사단을 이긴다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 사단을 이긴다.

‘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권세가 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할 때도 “나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대답하면 끝이다.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나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 문제에 부딪혔으나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쉽고도 당연한 한 마디를 못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수년 동안 헛된 길을 헤맸던 것이다.

세상에서도 이것을 알면 살기가 쉽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한다면 “ 나는 절대로 옳다”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단순하고 조용해질 것이다. 세상은 서로 옳다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다.

사람의 위치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다. 이 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힘써 지킬 필요도 없고 싸워서 얻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변치 않고 도적맞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인 것이다.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다. 오직 인생의 위치만으로 승리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명에는 가볍고 쉽다. 다른 이들은 훌륭한 길을 제시했지만 인생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혔는가! 9년을 면벽해서 도를 얻고 참 사람이 된다면 인류 중에 몇이나 그 길을 감당하겠는가.

나도 젊었을 때 훌륭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을 썼던 일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를 외우고 살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더 이상 쉽고 완전한 것은 없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인생이다. 아멘.

(2)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 짐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되라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지 못한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판단할 수는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였다(롬3:11~18). 알면서 행하지 못하면 불의한 자가 되고 판단하고 살리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이다.

사단은 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고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되고 판단하고 살리지 못하는 잔인한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3:20).” 하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분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셨다. 물위를 걷는 능력도,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는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다 배제하셨다. 그리고 오로지 인간 그대로를 지키심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구속을 이루셨다. 구속은 하나님 이 나타내신 의로서 새로운 것이며 또 새롭게 하기 위한 기초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구속 받은 자들에게는 동산의 문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열린다.

(3) 옛것을 폐하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폭로 하셨다. 선악을 안다는 것으로 자고해졌던 인간이 심판 되고 그로 인하여 만들어졌던 모든 것이 심판 받았다. 바벨이 심판 받은 것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차별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규례들 앞에서는 제도와 계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졌다.

(가) 차별이 폐지됨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인간도 천차만별이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더 나은 자와 못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다. 그러나 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반이 된다. 지식과 율법과 도덕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던 모든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롬10:12참).

(나) 율법의 계명들이 회수됨

율법과 계명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다. 그러나 구속이 왔으므로 그것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계명을 주지 않으신다.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시인되면 율법은 회수되고 정죄는 없어진다.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으므로 정죄도 없어진다(롬4:15참).

(4) 새것을 가져오셨음

(가) 분위기가 새롭게 됨

① 진노의 분위기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매우 험악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맞서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고 진노하고 있으니 그 분위기는 험했던 것이다.

성전의 번제단에서는 날마다 죄 없는 어린양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피의 분위기요 진노와 형벌의 분위기였다. 언제나 긴장이 감돌고 곧 바로 진노의 저주가 내려올 것 같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따른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항상 죄 없는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던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담 안에서 인

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 의를 만들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인간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진실한 자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더욱 위선에 빠져 도리어 진실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번제단이 또 필요했던 것이다. 이 분위기는 법을 주신 이와 범법자가 맞서 있는 자리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분위기였다.

② 화해의 문이 열림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로우시고 흠이 없는 분이였다. 번제단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이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마17:5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여셨다.

인간은 진실해졌고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다시 찾으셨고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이다. 하늘이 청명해졌다. 진실과 진실이 만난 것이다. 거짓이 모두 사라졌다. 선악을 안다고 자고하던 거짓도 사라지고 불의를 보시고 진노하던 하나님의 모습도 사라졌다.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분위기가 완전하게 새로워 졌다(골 1:20~22참).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나) 계약이 새로워 짐

① 율법을 통한 행위의 계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다. 인간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내세우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상호간에 지키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기 전에 진실을 보장하는 정상적 관계를 위한 상호간의 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계약 안에서 선악을 안다는 인간은 더욱 거짓됨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더하게 한 것이다.

② 은혜를 통한 믿음의 계약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의 정체성을 밝히셨으므로 대립적 관계는 사라지고 은혜의 관계가 정립되었다. 그러므로 법은 바뀌었다. **율법의 행위로 진실을 판단하던 법은 폐기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진실을 판단하게 되었다.**

첫 번째 계약은 율법을 통한 행위의 계약이었다. 선악을 안다면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이에 동의한 것이다(출19:8참). 그런데 그 행위로 의롭다고 할 육체가 없어서 법은 또 다시 규례들로 강화되었고 제사를 통해 심판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정죄와 심판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계약은 예수를 진실하다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인간의 정체성을 시인하고 믿는 자는 진실하다는 것이다. 아담, 즉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는 자를 믿고 따르면 거짓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인간의 참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을 목적으로 제정된 모든 법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한다.” 는 법으로 함축되고 옛 법은 폐지된 것이다.

(다) 새것이 음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

사단에게 속은 모든 인간은 십자가의 예수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게 내려졌던 모든 것이 그대로 전가되었던 것이다.(롬5:15참)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는다(롬5:18참).

②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함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 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와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한다(롬5장 참)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이 부끄러워한 연약한 인생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속 받은 생명으로 사단과 죄를 이기고 왕 노릇 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율법과 계명들이 새로워 졌음

율법은 정체성이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지 않은 체하는 자들에게 시험 문제로 내려진 것이다.(롬3:19참)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면 율법의 진노와 형벌은 회수되고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롬4:7,8 참).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사람에게 내려졌던 문제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①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이 새로워 졌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번제 단에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불사른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면 여호와께는 그 피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구약에 정해진 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사실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 하였다(히 9;10참).

② 제물이 새로워 졌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교통하고 자신을 대신 할 수 있는 진실한 인격이다. 이 인격이 아담으로 인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인격을 대신하여 한 상징으로서 동물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격이 나올 때까지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나마 계속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로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당연히 제사의 법은 새로워 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실을 요구 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가? 육신의 생명(진실)은 피에 있고 영혼의 생명(진실)은 구속 받은 인격에 있다. 그래서 율법은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진실(피)을 나타내시고 그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만민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인간은 구속되어 제 자리로 돌아 왔다.(마27:51, 히10:20참)

모든 것이 새로워 졌다. 휘장이 열렸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이 새로워 졌다. 율법과 계명들이 새로워졌고 하나님 표정도 새로워지셨다. 요한계시록 22장 3~4절에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였다. 하나님 표정이 얼마나 다정해졌으면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을 볼 수 있던 말인가!

행위로는 하나님을 뵈올 수 없지만 구속 받은 인격으로 는 하나님을 뵈올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 창조도 하나님이 해 놓으셨고 구속도 그분이 해 놓으셨다. 우리가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새롭게 해 놓으셨다. 계명도, 율법도 새로워 졌고 하나님의 얼굴 표정까지도 새로워 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계명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까지도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하신 일만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동참하고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성전을 새롭게 하심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거하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 하고 만나는 곳이란 의미에서는 회막이라 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인간은 땅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땅에 자신의 거처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백성은 그 집을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यो 길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일한 길을 통해서 그분을 뵈고 죄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야 했다. 그 법은 먼저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가 충분한 효력을 내지 못했으므로 해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 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죄의 회개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히 103,4참).

그러므로 성전은 새로워 져야 했던 것이다

1.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임

성전을 가장 쉽게 정의한 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셨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으로서 여호와와 모세와의 약속인데 이것은 인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이다.

가. 백성들과 함께 하는 여호와

처음 성전은 성막이었다. 백성이 천막 생활로 광야를 지나던 때였으니까 하나님의 집도 천막 형식이었다가 왕국이 건설된 후 정식 건물로 지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백성과 함께 하는 분이시다. 백성이 천막에 있으면 여호와도 천막에 거하시고 백성이 돌집에 있으면 그분도 돌집에 계시는 분이시다.

나. 자신이 정한 곳으로 모세를 부르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늘에 거하시고 인간은 육체이니 땅에 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함께 할 것인가? 여호와와 모세를 만날 때 산에서 만나셨고 부르실 때도 산으로 부르셨다. 산은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는 시커먼 구름과 뇌성과 나팔 소리가 천지를 흔드는 곳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엄히 명하시고 모세만 올라오도록 했다.

다. 백성을 만날 자신의 거처를 짓도록 지시하심

그러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의 자세한 설계도를 계시해 주셨다. 이에 모세는 그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이다.

1) 성막의 구조와 그 기능들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장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로 된 교통의 장소였다.

가) 번제단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번제단으로 구성되었다. 여기는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잡는 곳

으로 피는 그릇에 담아 지성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불사르는 곳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된 자아(이하 죄인)를 불사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피)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죄인은 이런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을 위해 죽임 당하실 것을 예시한 것이었고 그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나) 성소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가 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떡 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다. 떡 상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덩이의 떡이 있는데 매일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했다. 등대에는 감람유를 채우고 심지의 불뿔을 제거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면전을 밝게 비치도록 하며, 향단에는 특별하게 제조한 향을 살라서 늘 그 향이 성막에 충만케 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육신 안에 계실 때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셨다.

이것은 구속 받은 인간이 그 삶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밝게 하고, 그 혼(생각, 사상)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며, 그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예시한 것이다.

다)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 하는 곳이다. 여기에는 계명이 새겨진 두 돌 판과 만나 향아리가 든 궤가 있고, 그 덮개는 정금인데 속죄소라고도 하는 시은소가 있다. 여호와께는 거기서 제물의 피(생명)를 받으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정금 덮개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피는 속죄를 위한 예수의 피를 예시한 것이었다.

2) 만날 장소를 정하시고 약속하심

여호와께는 성막을 지시하시고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라고 약속하셨다. 만날 곳을 지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더라도 만날 만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만날 약속이 되어야 한다. 아무데서나 각자의 마음과 생각대로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진 후로부터는 성막 이외의 곳으로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자는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삿18:30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하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곳이므로 복수로(the heavens; 하늘들) 표현되었다(창1:1참).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획기적인 축복인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 그분이 약속한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3)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인격의 성전이심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을 위해 설치되었던 유일한 장소였지만 그것은 인격의 성전을 기대하는 모형이었고 실제로는 아니어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성전과 제물의 실체가 되심으로 이 한계를 넘어서 온전한 성전이 되셨다. 원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전으로 삼아 거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의 전도 살아 있어야 한다. 예수-성전은 인격 성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다(딤후3:15참).

가) 육체는 번제단에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음

죽임 당하는 것은 육체로는 끝나는 것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 지식의 육체(죄)가 되었다(창6:3참) 번제단의 제물들은 이 죄의 육체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체가 끝나야 산 혼으로 회복되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육체(우리들)를 완전하게 끝내기 위해서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요1:29, 고전15:3, 롬8:3, 히10:12, 18, 벰전3:18참).

나) 혼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셨음

성소는 빛을 비추고 떡을 드리며 향을 피워 드리는 곳이다. 이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다. 그의 만족은

빛이시며 생명이시고 향기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드리는 것이었다.

(1) 생명의 빛을 발함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정금 등대에서 감람유가 심지를 통해 탈 때 발하여 진다.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그가 계신 곳에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이 보였던 것이다.

(가) 정금

등대는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정금으로 만들었다. 정금은 금 이외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순전하시어 변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변치 못할 인격이 필요하다. 이것이 구속 안에 있는 인격으로서 인간에게서 변치 못할 것은 이것뿐이다.

(나) 기름

등대의 기름은 감람 열매를 틀에 짜서 얻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뇌를 겪으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심으로 아버지께 그 기름을 드렸던 것이다. 겟세마네는 예수의 혼을 누르는 기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눅22:42참).

주님의 일생은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름을 짜내서 아버지께 드리는 삶이었다. 신성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제거하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 심지

기름은 심지가 있어야 합당하게 타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심지는 섬유질의 실로 만들었다. 실은 거친 식물의 껍질을 삶고 두들기고 씻어 내 깨끗하고 부드럽고 유용하게 만든 것으로 연단을 통해 유용해진 인성을 상징한다.

육체가 된 인성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을 받은 후에도 옛 습성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유용해진다는 것이다.

심지가 고와야 기름이 고르게 태워져서 빛이 밝고 아름답게 비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심지에 타고 남은 불똥을 매일 정리해야 했던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일을 하다 보면 심지처럼 불똥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것을 늘 갈아 주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발하시는데 온전하게 쓰인 심지이시다.

(2) 생명의 양식을 드림

(가) 떡 상

상은 조각목으로 짜서 금을 입혔다. 이는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떡이 놓일 위치가 연합된 한 인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연합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할 상인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양식은 아무 상에나 진설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기초는 영원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나) 떡

조각목에 금을 입혀 만든 상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덩이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이 매일 갈아 엮어 놓고 다음에는 자신들이 나누어 먹는다. 이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고 다시 섬기는 자들이 받아먹는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떡 자체는 온전히 이겨지고 찌지고 익혀진 인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수셔도 맛이 좋고 사람이 먹어도 맛이 좋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되고 사람에게도 만족이 되는 영생의 양식이시다.(마16:16, 17:5참)

(3) 분향단에서 기도함

(가) 향단

향단도 떡 상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인성에 신성을 연합한 것으로서 성육신하신 인격이며 구속 받고 다시 난 인격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번제단의 기도와 달라서 아무나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구속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 향

분향단에서는 특수하게 제조한 향을 사른다. 이 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죽음과 고난이 따른다.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로 구성된 이 향은 죽음과 고난의 향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그의 전 생애의 기도였던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최종적이며 최고의 봉사인 것이다.

(다) 번제단의 불로 향을 사름

향은 죽음(몰약)과 고난(창포)의 향기(육계와 계피)를 드리기를 위하여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불로 살라야 한다. 이는 십자가 없이는 이 최종적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의 기초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다.

*** 봉사의 원칙

제사장은 성소에서 등대와 떡 상과 향단을 돌본다. 이는 제사장들의 일상적 봉사다. 사람이 이 봉사를 하려면 번제단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드릴 피만 남기고 타락 이전의 위치로 구속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산 혼으로 섬기려면 아담 안에서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길들여진 오랜 혼의 습성들은 처리해야 한다. 그 습성이란 선악과 안에서 자기 뜻대로 하던 것이다. 자기의 빛, 자기의 양식, 자기의 기도, 이런 습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군대에 가더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혼은 어떤 경우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일생을 아버지와 하나로 사셨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뜻 때문에 고민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그분도 무거운 압력에 눌리고 있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오니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다.

그러나 다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혼의 뜻을 완전히 아버지께 이양하신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나의 뜻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흔히 자기 뜻대로 하게 되고 일이 잘 된다는 명분 때문에 혼으로 했다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으로 일한다. 그러나 이 혼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처리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성소의 봉사는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명하신 법대로 해야 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봉사의 원칙이요 생명이 다.

다) 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음

(1) 피를 가지고 들어감

지성소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거기는 제단에서 가져온 피로써만 들어갈 수 있다. 피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피는 육신의 생명이고 영은 인격의 생명이다. 지성소에 거하시는 여호와와는 피만 보신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별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의 하나님은 피-생명-인격-영만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이다. 구속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만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 하여 일 년에 한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혹은 시은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시은소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이르셨던 것이다.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하는 것이다.

지성소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영을 드리는 곳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은소에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

육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혼은 성소에서 연단 받고 영(피)은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진다. 주님은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드렸던 것이다. 그 때 성소의 휘장이 열렸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는 영만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야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한다.

내가 끝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의 일은 부활이요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을 받아 살려면 내 영도 드러야 한다. 드러야 함에는 포기함이 포함된다(눅23:46참).

(2)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하심

여호와와는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셨고, 백성의 대표자가 속죄소에 뿌린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제는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이다.

피는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생명이 이미 죽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물은 번제단에서 이미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온 피는 죽은 자의 피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드리는 자가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신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자는 죽었다. 그러므로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엡1:7, 골1:14참).

(3) 피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심

법궤의 뚜껑 밑,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들어 있다. 그 뚜껑을 열고 닫는 것은 피다. 법궤의 뚜껑에 피를 뿌리면 율법 상자는 덮이고 정금의 시은소가 된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하셨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이다.

(4) 육과 혼과 영을 온전히 드림(포기함)

‘내 원대로’ 하려는 것은 혼의 문제이고, ‘내 생명-내 영’을 붙잡으려는 것은 영의 문제이다. 흔히 영은 문제가 없는 줄 생각한다. 그러나 ‘내 영’은 ‘내 혼’이나 ‘내 육’과 한가지다. 어차피 내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이탈했을 때 혼과 육만 이탈한 것이 아니다. 영도 함께 이탈한 것이다. 영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격은 전인적이다.

‘내 영’ 이거나 ‘성령’ 을 받았거나 ‘그 영과 합한 영’ 이거나 다 ‘나’ 다. ‘나’ 와 ‘내 영’ 이 따로가 아니다. 그런데 영만은 신성한 것으로 보존하고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 만나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지만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곧 부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육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혼으로 일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영으로 일 한다는 사람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과 혼과 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봉사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곧 성전인 것이다. 성전의 기능은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다. 예수님 안에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어 은혜와 실재가 충만했다(요1:14참).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새로워진 것이다.

물질로 지어진 처음 성전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요1:14)’ 같이 인격의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 성전이 새로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성전)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던 인격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옛 성전은 예수 안에서 인격적 성전으로 새로워졌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약속하셨던 실재는 예수의 인격 안이다(고전1:30참).

라. 죽으심으로 옛 성전을 헐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세우심

돌로 지었던 성전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로 대체 되었다. 그런데 다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삼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다.(요2:19) 이것은 성전 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예수는 분명히 육체가 되신 성전이였다(요1:14참). 그런데 이 성전(육체)을 헐면 삼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죽임 당하시면 부활하여 또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돌로 지었던 성전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성전으로 대체 되었고 육체가 된 성전은 다시 죽으심으로 허물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 즉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약속했던 ‘거기’가 성막이 왕국의 건설을 통하여 성전으로 확대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인격 성전은 그의 부활 생명의 분배를 통해 교회 성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시대에서 교회의 승리를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 될 것이다.

부활하신 몸은 교회가 되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만이 성전이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영이 우리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의 집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성전인 것이다. 새로운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1~22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였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 기둥이 수천, 수만 개가 있고 서까래가 수십만, 수천만 개니까 온 우주가 다 성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 한 분만 성전이고 더 이상의 성전이 없을 뻔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온 인류가 참여하여 하나의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지어진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성전이 되기를 기다리신다.

마. 하나님은 교회를 거처로 삼으셨음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와야 한다. 원리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세웠던 것이고, 그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성전이 왔던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것은 제한적이니까 교회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교

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신 곳이다. 장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로, 예수에서 교회로 바뀐 것이다.

장막도 돌로 지은 성전도 없어졌다. 그러나 예수-성전은 없어지지 않고 더 확대되었고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인격의 성전이므로 인류가 다 포함될 때까지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할 수 있었고 성전 이외의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로 정죄되었다. (왕상12:25~33참) 성전은 하나님이 지정하여 임재하신 현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엡1:23참) 하나님의 집이다(딤후3:15참).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의 실제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서 우리들을 접견하신다.

1) 교회가 성전이 됨

교회 안에는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제물이 잡히고 불살라지는 번제단이 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혼으로 봉사할 성소가 있으며, 마지막 피-영을 드릴 지성소 안에 시은소가 있다.

가) 교회-번제단

교회는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전도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번제)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사건으로 인간의 정체성이 판명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구속 안에서 인간을 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어 만방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불리어 온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 안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변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나) 교회-성소

교회 안에는 성소도 있다. 성소 안의 봉사가 연합 체계로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삶은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같이 내 뜻을 버리고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곳이다. 교회는 실제적인 성소다.

다) 교회-지성소

예수님의 마지막을 누가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했고(눅23:46) 요한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했다.(요19:30) 이것은 자기 영을 넘겨주고 포기하셨다는 것이다. 영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나’ 를 포기하셨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이다.

그래서 영만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지성소에서는 피-영을 드려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나를 포기하고 그의 나라-연합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교회는 실제적인 지성소다.

2) 하나님은 교회적(단체적) 봉사를 원하심

가) 신약성서는 교회를 위한 것임

하나님의 거처는 산당도 아니고 사원도 아니다. 기도원도 아니고 골방도 아니다. 교회다. 골방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분명히 교회다. 그렇지 않다면 성전도, 성육신하신 예수도, 그의 집인 교회도 필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신약성서는 모두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낸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체로써 이루어짐

제사장들은 반열(조별)로 봉사했다.(눅1:8참) 그분의 목적에 협력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므로 단체적이어야 한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다) 새로운 성전에서 봉사함

성전은 교회로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라고 하였고 디모테전서 3장 15 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성전은 과정을 거쳐 이제 교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을 회피하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기피자 생활을 하려는 것과 같다.

성전은 새로워졌다. 현재 땅위에 건축된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를 위해 봉사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실제인 길을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신 주님, 부활 생명으로 교회를 세워서 성전이 되신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를 경험하고 봉사하는 길을 열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길 안에서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 제사(봉사)를 새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셨던 성전은 교회가 되었다. 성전이 교회로 새로워진 것이다. 제사와 제물이 새로워지면 성전도 새로워진다.

1.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제물을 드림

가. 먹는 것으로 드림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생명의 절대적인 기본 조건은 먹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까를 생각하던 원시인들은 음식을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 같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였다(창4:3~4참).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려는 인간 종교의 시작이다. 여기서 발전한 것이 제사(봉사)다.

인간은 누구나 먹고 만족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도 음식을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다. 자기가 그러하니깐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사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새롭게 되어야 했던 것이다.

나. 받으실 분의 필요를 채워야 함

만족이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려면 그의 필요를 알아서 그 면을 채워 줘야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최우선이듯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다.

1) 제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보심

하나님께서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다. 이를 두고 동물을 좋아하시느냐 곡물을 좋아하시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양식을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니깐 제물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물은 단지 드리는 자를 대신할 뿐이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보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을 기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분이다.

2) 교리보다 인격을 보심

기독교사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 믿게 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열심을 쏟아왔다. 심지어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처형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전통을 남겨 준 것이다(요16:2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다. 제물에만 관심을 가지면 인간은 악해 지는 것이다.

교리가 중요한가, 인간의 목숨이 중요한가? 무엇이 인간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죽임 당해야 할 인간을 동물로 대신하게 하셨던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제물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면 제물만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에는 충성을 다하고 인간은 버리는 결과를 범한 것이다. 불효한 자식이 제사만은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교리는 틀림없지만 사

람답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교리는 틀릴지 몰라도 사람답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겠는가? 교리를 보고 택하시겠는가, 사람을 보고 택하시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리가 틀림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찌 되었든 제물만 옳으면 된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3) 주의 뜻 행하는 자를 보심

시편 40편 6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였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이어 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알았던 것이다. 제사와 예물만 기뻐하시고 드린 사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교통을 위하여 한 인격을 원하심

1) 교통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심

하나님은 자신과 교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인격이 필요한 분이다.

만물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하셨으나 교통은 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소백산에 와서 “보기에 참 좋다.” 고 하지만 소백산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많지만 그것들과는 교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 하시고 창조를 마치신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창조의 완성이다. 더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다.

2) 선악과로 인하여 교통이 단절됨(죽음)

그런데 이 교통이 막힌 것이다. 사람은 산 혼으로 지어졌다. 산 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도구일 뿐 생명은 아니다. 산 혼은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교통이 가능한데 사단이 이것을 알고 선악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교통의 길이 막힌 것이다.

발전소가 있고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전선이 바뀐 것과 같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며 찾으시니까 아담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했다. 구리 전선이 강철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송전이 되면 즉시 화재가 발생하므로 두려운 것이다.

3) 예수는 완전한 제사로써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심

예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완전하고 영

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하였고,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기록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으며, 16절에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새 언약은 한 제물로 제사가 온전케 된 후에 세워졌다. 이 언약은 인격에 대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자신을 만족하게 할 한 인격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심으로써 제사를 완전하고 새롭게 하셨다.

4) 하나님을 섬기기(제사)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 감

가) 번제단으로 들어감

(1)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를 취함

성전의 입구에는 피를 취하는 번제단이 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며 인격의 상징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만을 필요로 하신다. 인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인격을 대신하여 피를 취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번제단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단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 안에서 교회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2) 피만 취하고 다른 것은 다 불사름

선악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통하여 얻었다는 모든 것은 소멸해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것만 취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그것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갈라내려고 번제단을 설치하신 것이다.

나) 섬기기 위하여 성소로 들어감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번제단에서 심판을 받고 구속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소로 들어간다. 구속의 목표는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구속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1) 성소의 떡을 먹고 그 양식으로 봉사함

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섬기는 자가 다시 받아서 먹는 것이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산다(고전9:13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셨고 그 인격을 먹고 사셨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인격으로 섬기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속 받고 광야로 나왔을 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하나님을 섬겼다. 애굽에

노예 되었던 것은 애굽의 양식 때문이었는데 그 양식을 먹고 바로를 위해 일해야 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다.

같은 원리로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살았어야 했다.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양식을 먹었으므로 동산에서 쫓겨났다. 사람은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교회의 봉사는 그리스도-교회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한다.

(2) 성소의 빛으로 분별하고 봉사함

성소에는 신성의 빛이 인성을 통해 비친다. 성소의 빛은 자연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도 아니다. 성육신 한 인격의 빛이다.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이 빛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빛으로 일하기 때문에 교회는 헛된 일에 열중하는 것이다. 교회의 봉사는 이 빛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 죽음과 고난의 향기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함

성소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특별하게 제조된 향(출30:23~24 몰약, 육계, 창포, 계피:죽음과 고난의 향기)을 피우는 것으로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위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까지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향단의 기

도를 드렸던 것이다. 구속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주기도문 참조).

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다. 제단에서 흘린 제물의 피는 구속 받은 그 인격의 표시다. 십자가에서 남은 것은 인격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셨다.

(1)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 피만 드려야 함

인격(피)은 번제단에서 피 아닌 다른 것은 불사름으로 육체와 갈라져야 되고,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선악과로 오염된 혼과 갈라져서, 온전한 피만 남은 사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된다. 성장한 인격은 피만 가지고 가는 인격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엡1:7참).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피밖에 없다.

(2)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심

(가) 백성의 죄를 사하심

피는 생명이 죽었음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이 피를 범

궤 위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번제단)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구속)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 축복의 말씀을 주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그의 말씀이 주어진다. 막히지 않으면 생명의 축복이 흐른다.

*** 옛 성전은 예수로 인하여 새로워 졌음

번제단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소의 등불은 교회의 빛으로, 떡은 교회의 양식으로, 향단은 주님을 위한 기도로 새로워 졌고, 지성소의 피는 주님께 구속 받은 인격으로 새로워 졌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 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새로워 진 성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성소에서 봉사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속받은 사람으로 정해진 양식을 먹고 정해진 빛을 받아서 날로 성장하여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Ⅵ. 인류를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새롭게 하였고, 율법을 새롭게 하셨으며, 성전을 새롭게 하였고, 제사(봉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도, 성전도, 제사도 유대인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문제다. 신학은 곧 인간학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곧 인간과의 문제인 것이다.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과의 문제인 동시에 이웃과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와 같다.

1.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인류를 창조하셨음

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였다.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다. 아담은 인

류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인 것이다. 아담은 곧 사람-인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나. 아담의 타락은 곧 인류의 타락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든 사람’ 은 아담이다. 아담, 즉 인류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것이다. 죄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며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생명(말씀)을 받아서 그와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유에게 나타내서 분배하는 것이다. 즉 만유를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 목적에서 이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2. 하나님께는 인류가 필요함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며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만유에게 분배하시기 위해 인류가 필요한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교통하고 그 뜻을 알아서 표현하고 분배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이의는 의미가 없다. 또한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어떤 입장에서 기록했든지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복음인 것이다.

가. 사단은 인류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거역케 하였음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시켜 거역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교통의 대상인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어 놓으신 사람을 이탈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을 유대인의 말로 죄라고 한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사람은 없다. 한참 동안은 목적이 많아서 분주했는데 인생을 살고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았다고 할 것이 없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바쁘고 힘들게 산 것이다.

인생은 원래 자기 목적이 없고 지으신 이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목적에서 이탈하면 아무 목적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살아 보려고 스스로 목적을 세우면 그것 자체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남과

분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목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순종해야 한다.

나. 하나님은 한 족속을 불러 제사장 나라로 세웠음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

범죄한 인류가 모두 바벨을 건설할 때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범죄한 인류는 불법과 거역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 받고 시은소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백성 앞에 나와 그것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하여 택함 받고 인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었으며 그 신분은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2) 이스라엘이 이 직무를 유기함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름다운 직무를 유기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함으로 독선에 빠져 이방인과 원수가 되고 만 것이다.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 섬기라고

주신 특권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욕 되게 하였다.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저주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대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열된 것이다.

이 분열과 원수 됨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이방인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한다. 그러나 지혜로도, 율법으로도 이 분열과 원수 됨을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인류가 다 같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을 인정하겠다.” 라고 할 것이고(기독교의 생각도 그러함), 이방인들은 지혜가 있으면 하나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 또는 교리가 없어서 분열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분열된 것도 아니다. 선악과를 먹고 다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분열된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람과 분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형제가 연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여 정해진 목적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음

분열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율법과 이방인의 지혜로 나타나지만 그 깊은 것은 선악과를 먹고 각자 하

나님같이 된 것이다. 가짜 하나님이 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어야 하는데 각자가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분열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원수 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였다(엡2:15,16참). 십자가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구속 안에는 원인 자체가 소멸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목적 안으로 인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주셨다. 믿는 자는 천당으로 보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6~27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말씀으로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과 하나 된 인격을 통해 만유에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나. 인간이 이탈하여 하나님을 대항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를 대신해야 할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 결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서로 대립하고 분열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두 거인이 되려 하고 단체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려고 아들을 주심

1) 예수는 인류 구속을 위해 합당한 제물임

이탈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필요하다. 범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해결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롬5:19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였으면 이 범죄를 담당하고 처리할 사람도 인류의 대표자여야 한다. 누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가?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 이와 같이 인류를 구속할 사람도 흠이 없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순종하는 아들로써 흠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다(요10:30참). 한편 인간에게는 아담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것, 즉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있는 흠 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이다.

2)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같이 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즉,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가) 죽임 당하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좋은 일들을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결정하고, 로마 총독에게는 반역죄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이다. 그는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각자 제물을 드렸으나 가인이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 지지 못한 것을 알고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비극적인 종교사의 전형인 것이다. 합당하지 못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어느 때나 합당하게 경배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나) 인류를 구속하심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 대를 이어가게 하였고, 네피림이 땅을 멸망으로 이끌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셨으며, 바벨의 거역에서 아브람을 불러내 열국의 아비를 삼았고, 죽은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셨으며, 애굽에 종 되었던 야곱 족속을 구원하여 성전을 세우고 왕국을 건설케 하신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신 것이다.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회유하고 인도했으나 이미 하나님같이 된 인간은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다.

아담은 지식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는 거인이 되었고 단체적으로는 거대한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원래 바라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었지 거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고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끝없이 또 다른 세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아담이 바라던 바로 그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성품에 흠이 없었고 인간이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아담이 바

라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인류의 깊은 소원은 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인류의 소원을 품고 그를 따랐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 어느 누구와도 다름없이 한 인생으로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이지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거된 것이다. 선악을 알면 하나님같이 된 줄 알고 하나님 위치에서 판단하던 모든 인간에게 백일하에 내려진 심판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진실을 보고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그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라는 것이다. 자기 위치를 알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구속이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벤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롬3:25 “그의 피로 인하여 ~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히9:28,10:12 “~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이와 같이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 예수는 구속으로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부활로 새 인류(한 새사람-교회)를 창조하셨음

1) 예수는 구속으로 분열을 끝내심

에베소서 2장 14~16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은 주로 율법 때문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 안에는 율법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원위치에 있으므로 분열이 없다.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십자가는 분열된 모든 것을 원인 무효화 하고 인류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인류를 새롭게 하신 것이다.

2) 부활로 새 인류를 창조하셨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참 사람, 참 아들로 인정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죽으심을 통해 옛 인류를 처리하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새 인류는 그리스도의 확장인 그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옛 사람이 없는 것이다. 옛 사람의 잔재는

있어도, 옛 사람은 없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한 새사람은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 은 분열하는 옛 사람이고 새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이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바벨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다.

새사람인 교회가 창조되었고 또 자라고 있다. 콩을 심어 놓았으면 콩밭인 것이다. 잡초가 있어도 농부가 콩을 심었으니 콩밭인 것이다. 잡초는 제거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권세 있는 선언인가! 새것이 되었다. 장차 새것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새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 분위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음

해방이 되었어도 나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바뀐 것이었다. 해방이 되었다고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통치권이 바뀌고 권리가 달라지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다. 이것이 나 개인이 바뀐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나” 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나는 이런데’ , ‘나는 저런데’ 하는 것이다.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 가 아니고 ‘우리’ 다. 하나님이 세상(우리)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가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위치로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보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인간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땅 위에서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II. 만물을 새롭게 하심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21:5).” 하셨다.

1. 새사람은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해야 함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만물’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늘에서는 천사고 땅위에서는 물질이며 인간세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가 새롭게 한신대로 만물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놓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창2:19참) 인간은 만물에게 이름을 지을 자

로 지어진 것이다. 이름은 성질과 용도를 표시한다. 만물의 성질과 용도는 사람이 정한다. 꽃이 되려면 꽃이라고 이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만물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달라졌으니 이름도 달라지는 것이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이름은 사람에게 지으라 하셨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리 집에 성막의 모형이 있는데 손자 아이가 오면 그것을 장난감으로 여긴다. 손자 아이에게서 그 이름은 '장난감'으로 바뀐 것이다. 만물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다.

만물은 아담이 이름 한 대로 이름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물은 그리스도께서 이름 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사람 안에서 만물은 새 이름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에도 맞게 지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보기에 좋아야 합당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도 좋게 보이면 합당한 이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은 이 문제에서 인생의 행,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쁘게 여겨지면 불행이고 좋게 여겨지면 행복인 것이다. 나쁜 이름을 지어 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헛일이 되고 하나님은 모독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잘 지어 놓으셨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주 나쁘다’ 는 이름을 지어 버리면 지으신 이는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고 하신 것을 ‘왜 이렇게 밖에 못 만들었는가?’ 로 바꾸어 버리면 축복은 저주로, 감사는 불만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은 불행이나 저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좋은 기계라도 그 기계를 다룰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고장을 내고 마는 것이다. 기계는 기술자에 의해서 좋은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기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잘못하면 기계만 욕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만물이 탄식한다는 의미다.(롬8:22참)

그러므로 이제 새사람은 만물의 이름을 합당하게 지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만물’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늘에서는 천사고 땅위에서는 물질이며 인간세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가 새롭게 한신대로 만물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한다.

가. 천사에 대하여

사람들은 천사를 부러워한다. 천사를 능력 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표준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은연중에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했다. 심판할 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므로 천사와 하나님의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일했다. 욥기 1장 6절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5~7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같이 천사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 주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자다” 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가? 천사인가, 사람인가? 이 문제다.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라며 시험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이 사람임을 분명히 하셨는데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했던 것이다. 인간의 위치는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할 위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위치로 확실하게 돌아와서 천사의 이름을 합당하게 지어 주어야 한다. 그 때 우주 질서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나. 물질에 대하여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는 생존과 축복에 관계 된다. 그러므로 물질의 이름을 잘 지어야 생존과 축복이 무난하게 된다. 물질을 대표한 것은 돈이다.

로마서 8:18~21장에는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아들이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데 쓰이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이름을 잘못 짓기 때문에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축복을 받으려면 돈의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이름을 잘못 지어서 돈이 화가 나면 사람을 잡는다. 그러므로 물질에게 이름을 제대로 지어 줘야 한다.

귀한 이름을 지어 줘야 물질이 귀하게 쓰인다. 합당한

이름을 지어 줘야 내 모든 소유가 합당하게 사용된다. 이름을 잘못 지어 줘서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욕만 얻어먹게 된다. 내 돈을 쓰고 내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귀한 이름을 붙여 잘 사용하면 이보다 빛이 나는 것도 없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하는 것이 백지 한 장 차이듯이 돈이 저주가 되다가 축복이 되는 것도 백지 한 장 차이이다.

다. 이웃에 대하여

짐승들은 처음 만나면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대결로 관계를 시작하고 힘으로 관계를 설정한다. 인간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게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 줄 것인가?

아담 안에서는 그 지식 안에서 상대를 대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짐승들이 힘으로 대하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거기에는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고 그 차별 안에서 관계를 설정한다. 결국 대결 구도 안에서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대결이 없고, 부활 안에 있으므로 한 생명으로 만나게 된다. 여기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속 안에서 사람을 보면 평등하고 부활 안에서 사람을 보면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 주고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다. 나에게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왔어도 내가 그를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잠시 후에는 얼굴이 밝아지고 편안해 하는 것이다. 들어 올 때는 대결자의 얼굴이었으나 나갈 때는 이웃이 된다.

우리가 이름을 짓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새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 만물이 새로워진다.

2. 예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창조의 주가 되셨음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다.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다. 거기는 모든 것이 새롭다.

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미 그 영광이 사라졌다. 그것은 영원한 성(사회)이 아니므로 다시 회복할 수도 없거니와 회복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원한 사회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동산의 완성이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새로 만드신 것이다.

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백성은 사랑을 입은 신부와 같이 아름답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그 장막이 되어 아름다운 신부가 된 것이다. 교회는 땅에 있으나 그 본성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보좌(통치)를 가져온다.

다. 하나님의 보좌는 만물을 새롭게 함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만물이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과 같지 않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죽음을 가져왔고, 율법은 공포를 가져왔으며, 종교는 번민과 갈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신 생명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 교회 안에는 지식이나 율법이나 종교 같은 것들 대신에 새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사람이 새로워 졌으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새사람으로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대로 아멘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다. 지음 받은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하나님의 보좌(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3. 만물의 이름을 새로 짓자

우리는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야 한다. 다 알지 못해도 ‘이것은 나를 복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구나.’ 라고 믿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 나도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만물에도 새 이름을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피조물로서도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그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다. 모를지라도 그분은 아버지 안에서, 창조자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셨다. 이것이 인류를 새롭게 하고 우주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고 만물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라.” (롬3:23~24) 하였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짓자.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새롭게 짓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라고 이름을 지었다. 새 이름을 준 것이다. 지금은 우리끼리 새 이름을 주었지만 이것이 확대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형제여!’ 라고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새로운 관계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새롭게 지어 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왜 나와 친구가 안 되느냐?” 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친구라고 지어 주면 된다.

우리 동네는 열 가구 정도가 사는데 가끔 오는 젊은이들 외에는 할머니들뿐이다. 처음 이 동네로 이사했을 때 분위기가 냉랭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친해졌다. 그분들에게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자. 예수 안에서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 이름을 지어 줘야 한다. 이름 짓기에 달렸으니 새 이름을 주면 다 좋아진다.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 주님은 극도의 부정을 극도의 긍정으로 바꿔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자. 지금까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당장 이름을 새로 짓자.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새로 지어 주자. ‘형제’ 라고 짓든지 ‘자매’ 라고 짓든지 ‘친구’ 라고 짓든지 새로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부르자. 그러면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새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만물의 이름을 새롭게 짓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새 이름을 주고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III. 소망을 새롭게 하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것이라.” 하였다.

전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은 모두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망도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 졌다. 구속과 새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계21:5).” 이것은 이미 이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옛 것들은 모두 청산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이미 열려 있는 것이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미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고 새로운

세계가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물이 있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세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눈만 떠지면 이 세계가 보이고 지금도 새로운 세계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옛 사람이 구속을 받아 새로워 졌다.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율법도 새로워지고 성전도 새로워지며 제사도 새로워지고 만물도 새로워졌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 구속과 새 생명 안에는 새 소망이 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소망이 있다.

1. 하나님은 연합된 인격을 약속하셨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하와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인간의 소망이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 주신 영원한 축복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주시고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하셨다. 하나님은 같은 것을 짓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것을 지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씨와 땅은 같지 않아야 하고,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은 같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은 연합을 통해 번식하고 번성한다. 하나님과 사람은 당연히 다르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연합하면 땅을 지배할 인격체가 되고 은혜와 실체가 충만해진다. 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다. 이것이 연합이고 비밀한 축복이다(요10:30참).

신이냐 인간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의 문제다. 하나가 되면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고 축복하셨다. 씨와 땅이 연합하여 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한 인격이 되면 만유는 풍성해지고 은혜와 실체가 온 우주에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하신 세계 안에 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속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셨으며, 우리들은 그의 부르심 안에서 연합하여 형제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우리들 안에 계신다. 우리들은 그의 거하시는 집이며, 그가 움직이는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어떠한 축복이며 영광의 소망인가!

2.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음

서로 다른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을 지배하라 하신 여호와와는 한 족속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다. 변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의 백성은 다시 만유를 통치해야 한다. 이 통치는 통치자의 성품을 만유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다.

이 약속에 따라서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다. 아담과 약속한 동산은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왕국으로 발전한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성품과 소유를 자기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 그의 성품을 상속 받은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은 만유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됨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들의 뜻이 땅위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왕국은 한 아기의 나라이며(사9:6참) 인자의 나라이고(단7:13,14참) 어린양의 나라이며(계14:1참)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나라(계22:1참)로서 완성되는 영원한 통치로서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발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며 영광스러운 것이다.

가. 이스라엘은 국권만 구하다가 망했음

그러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만을 원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은 대제국이 아니라 온 인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류를 다스리는 중보의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제국과 같은 나라만을 바라다가 그들이 소망하고 부러워하던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담은 천사를 부러워하다가 그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양식을 구하다가 바로의 노예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소망이던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이다.

나. 선지자들은 다시 영원한 왕국을 소망했음

나라가 망하자 백성들은 더욱 국권 회복을 바라고 있었

으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계시를 접하게 된다.

다니엘서 7장 13~14절에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였다. 다니엘은 인자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이다.

인자는 짐승들과 다른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명백하게 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는 그들이 찾던 나라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기대는 국권 회복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도리어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어그러지자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다.

심지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행 1:6)라고 물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국권의 회복, 제국의 소망을 기다렸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생각은 근원부터

다르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은 어떤 경우에도 시들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서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음

1) 사도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어린양이 통치하는 왕국이었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하였다. 사도들의 소망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양이 통치하는 왕국이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통치하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2)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세상에서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바꿀 때에 함께 부활하여 다시 땅에서 왕 노릇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소망했던 하나님과 어린양이 통치하는 나라는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전이나 사후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의 문제다. 그런데 왜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왕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예수께서 왕국을 가지고 오셨음

예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가 오실 때 왕국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눅17:21).”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곧 그의 왕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예수님은 왕국의 씨로 오셨고, 지금 우리는 그 씨를 받아 자라고 전파하며 증가되어 나타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3. 예수는 구속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음

사도들은 장차 올 나라를 소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그 나라가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의 구속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다. 구속은 우리를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왕국은 구속 안에서 실현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구속 받은 백성들 안에 두고 계시는 것이다. 농부는 씨를 땅에서 키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받은 백성들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는 통치를 행하신다. 그러므로 구속 안에서 그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구속은 왕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속은 인류의 참된 소망이며 모든 소망의 실제인 것이다.

가. 예수는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같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갖는 것으로서 바벨론으로 예시된 멸

망하는 나라다. 그리고 부름 받았다는 사람들의 소망은 천당이 아니면 세상 개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을 제쳐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왕국의 씨로 보내셨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왕국은 새롭고도 산 소망이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종교에도 소망이 없다. 참 소망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으로 확장되고 있는 신비한 통치에 있다.

이 사실은 그의 몸인 교회로서 새롭고도 산 소망이다. 이것은 제국을 꿈꾸는 타락한 유대인의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천당 간다는 가련한 인간의 소망도 아니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개혁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정의파들의 소망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의 집이요 몸인 교회인 것이다(엡1:3~9참).

1) 인간의 소망의 종착점은 바벨임

선악과를 먹은 인간 소망의 종착점은 바벨이다. 직접 가 보지 않아도 다 가 봤고 몰라도 이미 다 해 본 것이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인간의 소망의 종착점은 바벨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같이 되어 바벨을 건설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린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한다.

세상에는 어린양의 통치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어린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올 것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사람이 소망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길은 전혀 다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어린양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 맞은 십사만 사천 인이 있고 7장 9~14절에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이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하였으며, 다시 14장 1~4절에는 어린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선 십사만 사천 인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어린양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였다.

이들은 하나님 왕국의 처음 익은 사람들과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다.

Ⅸ. 영원한 보좌

1.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

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름

요한은 이 나라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묘사하였다. 이 강은 에덴동산에 있던 그 강이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라고 했다. 그런데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덴은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인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린다고 하였다. 이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는 생명의 분배다. 하나

님의 생명이 어린양을 통해 흘러나와 분배되는 것이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로부터 흘러 생명나무가 자라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세상은 사막과 같다. 흐르는 물이 없는 것이다. 서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데 어디서 생명의 물이 흐르겠는가.

그러나 어린양 예수가 통치하는 왕국에는 생명의 물이 흐른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만유에게 분배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셨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다리던 세계인가!

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함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였다.

만국은 만민이고 만민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길이 없는 곳에서 서로 앞만 다투고 있는 것이다. 빠리는 달리지만 열매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의 무성한 잎사귀가 약인 것이다. 교회의 풍성은 방향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세상을 치료하는 약이 될 것이다.

다. 저주가 없음

서로 앞만 다투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다.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축복이 복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저주인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분을 대신하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지음 받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저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사람으로 구속함을 받아 어린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선 십사만 사천 인에게는 그 저주가 없어진 것이다. 위치가 회복되어 본래의 사명에 복귀하게 되었다. 영원한 통치자와 함께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다.(계22:3참)

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계 22:3~4).” 라고 하였다. 종은 얼굴을 들고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자리는 언제 어느 때나 살별하다. 이것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제는 종들이 주인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다. 그 살별 했던 분위기가 섬기며 얼굴을 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분을 섬기는 자는 그분을 본다. 미용사들은 사람의 얼굴을 다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분의 얼굴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분

의 얼굴을 대신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얼굴이 된다.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지고의 축복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 그분을 대신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노사 간의 문제와 다르다. 그를 섬기는 그 자체가 그분과 하나로 드러나는 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출33:23참).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얼굴을 친히 보는 것이다.

마.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음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다고 하였다(계22:4참). 전에는 종의 이마에 주인의 화인이 찍혀 있었다. 종은 그 표시를 내놓고 다녀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의 화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 있다는 것이다.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이듯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다르다. 주인과 종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주님만 섬긴다. 오직 주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섬기는 자에게 그분의 얼굴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있어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이다.

주님을 섬겨야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나타나심은 인격적인 것이므로 주님을 섬겨야 나타난다. 나타나면 하나다. 존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타남의 문제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내가 있고 내가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나신다. 나타나는 면에서 그분과 나를 가릴 수 없다. 빛이 비칠 때는 전등과 전기는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은 나와 갈라 낼 수 없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나도 주님으로부터 갈라낼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인 것, 이것은 에덴동산보다 더 전진한 것이며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바.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심

성소 안에는 일곱 등대에서 감람유가 타는 불이 비치다. 성소 안에 다른 빛이 비치듯이 왕국도 다른 빛 안에 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계22:5).” 한 것은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이다.

사물은 물질적인 빛으로 보지만 주님은 다른 빛으로 본

다. 시편 36편 9절에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빛으로만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본다. 그분은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 분이다.

주 예수께서는 “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였고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요1 1:5).” 라고 하였다. 그 빛이 곧 그분이다. 그 빛은 스스로 비치지 않는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비치는 것이다. 성소에 그 빛이 있었듯이 그분을 섬기는 종들에게서 그 빛이 비친 것이다.

사. 그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함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는 실제적으로 그를 섬기는 종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종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며 다스린다는 것이다. 존재로서는 다르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다. 우리가 그분에게 참여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분과 우리는 하나다.

인격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가 하나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다.

하나님과 사람의 최종적인 소원은 짐승의 통치가 아니라 어린양이 통치하는 세계다.

에덴동산은 처음 계시된 하나님 나라였으나 약점이 있

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양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로 나타났고 교회는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변화된 새로운 나라다. 사단이 불 못에 던져졌고 바벨론도 무너져 버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주님은 전에 있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다. 동산 까지도 새롭게 하셨다. 처음 동산은 뱀이 들어왔지만 새 동산은 다시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뱀이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미 머리가 상했고, 교회의 승리로 불 못에 던져졌다. 그러므로 사망의 문이 밤낮으로 열려 있다. 뱀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새 동산은 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양이 통치하시고 그를 섬기는 종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할 것이다.

2. 그 영과 신부가 공급하심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그 영과 그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하였고, 16절에는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를 보냈다고 했으며, 17절에는 그

영과 그 신부가 누구나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 영과 신부’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와, 예수께서 그 교회를 위해 보내는 사자로 공급 되는 생명수의 최종적인 실제라는 것이며 우리가 받는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와 교회- 그 영과 신부라는 것이다.

가. 듣는 자도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에게 들린다. 그의 통치 영역은 예수의 피로 구속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 영역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그의 말씀이 들린다. 구속의 영역, 이 얼마나 쉬운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들린다. 들을 귀는 그의 구속을 받고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의 귀다.

나. 목마른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라고 하셨다. 생명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섬김에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생명수를 먹으라는 것이다.

세상은 생명의 물이 없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갈등을 일으키고 율법과 계율은 마른 땅을 치면서 물을 내라고 한다. 짐은 무겁고 멍에는 고달프다(창3:16~19참).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양의 통치가 있는 곳, 예수께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신 곳,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물이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한다.

다. 값없이 받으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다. 왜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가? 예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고 얻으신 것이며, 그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값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를 모두 무상으로 받는다. 구속 안에는 하나님과 이탈한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내라고 하시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성전 예배도, 제물도 요구하시지 않는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전부 무상이다.

라. 속히 오시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22:7) 하셨다. 속히 오신다고 하신 지가 이천 년이 넘었다. 그는 이천 년 동안 날마다 원하는 자들에게 오셨던 것이다. ‘듣는 자,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바로 가까이 계신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벧후3:9)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느냐고 했던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곧 오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50년 60년을 기다렸으니 꽤 오래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또 주 예수는 속히 오신다고 했다. 주 예수님은 멀리 계셔서 천천히 오시는 분이 아니다. 듣는 자에게는 아주 속히 오시는 분인 것이다.

마.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는 스스로, 홀로 은혜를 베푸시기가 어려우신 분이다. 인간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라도 만민에게 분배하시는 그의 은혜를 받아 오지 못하고 겨우 율법이라는 조건이 붙은 은혜만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지어다.” 라고 하고 “아멘(계22:21)” 이라고 하였다.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 육체가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은 모든 것, 즉 옛것들을 새롭게 해서 만민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 세계는 새로워 졌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을 때 은혜를 가져왔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분배하셨으며, 신부의 영(교회의 남편)이 되심으로 만민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속 안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고 당신의 구속 안에 이렇게 놀라운 희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현래 목사님의 저서

창세기 말씀 4X6배판 608쪽 정가25000원

창세기는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성숙함으로 맺는다. 한 사람의 창조에서 한 사람의 입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흠으로 지어진 한 사람이 사탄의 울무에 걸렸으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하심과 단련하심을 통해 성숙에 이르러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에 이르는 한 완전한 삶과 승리를 보여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차원을 달리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88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양문성서회보'에 연재하였던 말씀을 단행본으로 발행함)

출애굽기① 신국판 양장본 540쪽 정가25000원

창세기는 한 사람 아담의 창조에서 한 사람 요셉이 죽어 입관된 것으로 끝을 맺었고 출애굽기는 구속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으로 끝맺는다. 그들은 유월절로 구속한 그 백성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백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을 이끌어 내시어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고 그들 안에 자신을 새기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리신 율례 들 역시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 백성이 마땅히 준행해야 할 법률이지만 법률은 그것을 발하시는 분의 어떠하심 안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분의 마음이며 성품이고, 그분의 경륜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백성과의 교통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② 신국판 양장본 415쪽 정가20000원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왕국(통치)을 갖는 것이다. 아담이 실패하여 빛나갔으므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육신에 끌려 애굽에 종 되었으므로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한 인격을 조성한 기록이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한 백성을 길러내는 기록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되돌려져야하고 그분의 거처를 위해 성막을 건축하고 그분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출애굽기는 구속과 구원을 역사적으로 그려놓은 그림 같은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재화된 그분의 구속과 구원을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려면 출애굽기는 원만하게 소화해야 한다.

(1997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교회생활'에 연재되었던 말씀을 단행본으로 발행함)

마태복음 4X6배판 492쪽 정가20000원

예수는 복의 근원이다. 죽을 것을 죽게 하고 살 것을 살게 하셨다. 심판 받을 것을 심판 받게 하고 인정받을 것을 인정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인하여 죽었고 또한 예수로 인하여 살아났다. 선약을 앎으로 하나님같이 된 나는 죽었고 숨이 코에 불은 인생으로서의 나는 살아났다.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죽었고 새사람으로서의 나는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사람으로 산다. 이것은 세상의 관원(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고 사탄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복의 원천이 되시려고 이 비밀한 길로 오셨다(1988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양문성서회보'에 연재하였던 말씀을 단행본으로 발행함).

고린도후서 신국판 양장본 437쪽 정가25000원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약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신약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8년간 목회를 했으며 2년간 전도기관에서 사역을 했지만 신약을 모르고 살고 일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도 억울한 일이었던가!

이제 신약을 알고 그 길을 걸어온지 30년이 넘는 이때에 고린도후서를 다시 대하면서 나를 이 새 언약 안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서 사역의 직임을 말도록 배려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더불어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디모데전서 신국판 양장본 433쪽 정가20000원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교회에 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온 무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아래 사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는 땅 위에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왕국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의 몸이요 군대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로서 사탄의 왕권을 파하고 이들의 권세로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골로새서 신국판 양장본 258쪽 정가10000원

골로새서는 하늘에 쌓인 소망을 제시한다. 머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종교들과 철학과 문화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현혹 되지 말고 머리가 있는 몸이 귀속해야 한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죽을 곳에서 죽고 살 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탁월한 인격이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통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시작에 관한 계시 신국축소판 173쪽 정가5000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시작이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그 시작은 씨와 같으며 이 씨는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요한의 계시록에서 추수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먼저 씨를 알아야 한다.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들의 상태를 보면서 나와 같은 우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주님 앞에 이 작은 것을 내 놓는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시기를 빈다.

교회의 이상 신국축소판 297쪽 정가8000원

하늘은 언제나 푸르지만 땅은 한결갈지 않을 뿐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있는 것처럼 계시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하지만 오늘 땅 위에 있는 교회는 그 번지를 찾기 어렵도록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감히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모습을 이상(異象)을 통해 조명해 보려고 이 글을 썼다. 어린양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상이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상들은 글 보다, 말 보다, 더 간결하고 분명하게 교회의 참 모습과 본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교회생활'에 연재하였던 것을 단행본으로 발행함).

성경으로 본 인생의 해답 신국축소판 142쪽 정가5000원

만유마다 정해진 길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 길이 정해져 있다. 식물에게는 식물의 길이 있고 동물에게는 동물의 길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제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이며 축복인 것이다.

만물은 모두 이 길에 있으며 이 정해짐에 순응하는데 사람만 특별히 이 길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만들려고 함으로써 번민과 고통이 그 길이 되는 것이다. 아담은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과 결별하여 자신의 길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 길이 곧 가시밭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시밭을 벗어나려면 정해진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라도 바다에서 살려하면 죽을 일 것이며, 물개라도 산중에 살려하면 고통밖에 없을 것이다. 창조자가 정해주신 길은 합당한 길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보여주고 있다(2006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교회생활'에 연재하였던 것을 단행본으로 발행함).